

碩士學位論文

플라톤의 藝術敎育論에 있어서
舞踊과 體育의 關係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舞 踊 學 科

舞 踊 學 專 攻

이 겨 라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周子

플라톤의 藝術教育論에 있어서
舞踊과 體育의 關係

Relationship of Dance to Physical Education in Platon's Art
Education Theory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舞 踊 學 科

舞 踊 學 專 攻

이 겨 라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周子

플라톤의 藝術敎育論에 있어서
舞踊과 體育의 關係

Relationship of Dance to Physical Education in Platon's Art
Education Theory

위 論文을 舞踊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舞 踊 學 科

舞 踊 學 專 攻

이 겨 라

이겨라의 舞踊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7
제 2 장 플라톤의 예술론과 무용	8
제 1 절 고대그리스의 예술개념	8
제 2 절 플라톤의 예술론	9
1. 모방적 예술	9
2. 영감적 예술	11
제 3 절 플라톤적 무용의 의미	13
제 3 장 플라톤의 교육론과 무용	17
제 1 절 플라톤의 교육론	17
1. 교육사상	17
2. 교육단계	18
제 2 절 무시케교육과 무용	19
1. 광의의 무시케와 협의의 무시케	19
2. 무시케 교육사상	21
3. 무시케 교육과 코레이아	23

제 3 절 김나스틱교육과 무용	27
1. 김나스틱 교육사상	27
2. 『법률』에서 김나스틱과 무용	28
1) 교육의 두 종류에서 김나스틱과 관련된 무용	
2) 무용의 종류에서 김나스틱과 관련된 무용	
 제 4 장 플라톤에 있어서 무용과 체육	31
 제 1 절 전쟁무용과 군사훈련	32
제 2 절 무용의 목적과 기능	34
제 3 절 무용을 구성하는 요소- 리듬	35
제 4 절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무용의 효용성	36
제 5 절 예술적 관점에서 본 무용과 체육	37
 제 5 장 결론	42
 【참고문헌】	45
 ABSTRACT	48

【 표 목 차 】

[표 1] 『법률』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의 무용	24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교육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인간교육의 하나인 ‘전인교육’과 ‘창의력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여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은 오늘날 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교육으로, 예술은 교육의 기초학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중시되고 있다.

예술이 일반 교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먼저 예술교육이란 어린이 스스로 사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표현된 예술작품을 재현·감상시키는 교육과정에서 정조성(情操:Sentiment), 창조성, 개성 등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의 기초가 된다.

첫째, 예술 활동은 인간의 타고난 충동인 유희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예술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발전을 촉구하여 육체적 정신적 삶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으며, 둘째, 예술작품의 형성은 세계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인간 감정의 육성에 유용하며, 셋째, 예술 활동은 현실에서의 삶의 불충분함을 초월하여 바람직한 세계를 표현하므로 인간의지의 교육에 특히 유효하며, 넷째, 예술은 심신 조직에 고도의 운동성을 요하므로 감각과 정신과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키고, 다섯째, 예술은 한 시대의 인간이 도달하는 최고의 사상을 표현하므로 인간의 삶을 단일한 감각에서부터 고도의 정신성으로 높이며, 여섯째, 우리의 의식을 종합하는 능력인 상상력을 양성한다는 점 등이다.²⁾

이와 같은 주장이 바탕이 되어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

1) 우종욱. (2001).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서울 : 교육과학사. p.7.

2) 다케우치, 도시오. (1974). / 안영길 외 역. (1984). 美學事典. 東京 : 弘文堂. 『미학예술학사전』. 서울 : 미진사. pp.622-623.

면서 무용은 음악, 미술과 함께 예술교육의 확대에 동참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무용교육에는 음악이나 미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무용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예술인 무용이 예술교육 분야에서가 아니라 체육교육에 종속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과 미술의 경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학교의 정규 교과로 채택되며 독립된 예술교육으로 다루어졌지만 19세기 학교교육에 도입된 무용은 예술이 아닌 체육에서 다루어졌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무용계의 노력으로 오늘날 교육에서 무용은 점차 예술지향이 강해지고 체육이나 인간 운동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³⁾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2년 전국규모의 『예술교육지침』이 발표되며 그 일환으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⁴⁾, 우리나라 무용계에서도 무용은 체육이 아닌 예술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이 예술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용은 예술이고 체육은 예술이 아니다.”는 무용과 체육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무용은 예술에서 체육은 운동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교육목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한다.

‘무용교육’은 “무용창작, 공연, 감상의 미적체험을 통해 자아인식, 창의력,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자기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기실현’이란 신체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용교육의 목적을 주로 기술적 능력의 습득과 정서의 발달에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무용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창조적 활동 및 신체 움직임 과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⁵⁾ 반면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 성장발달의 촉진 및 바람직한 사회성을 육성

3) 日本舞踊教育研究會. (1991). / 현희정 역. (1997). 舞踊學講義. 『무용학강의』. 서울 : 보진재. p.130.

4) National Dance Association. (1994). / 현희정, 김학금 역. (1996). *National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 『미국무용교육지침』. 서울 : 보진재. pp.3-5.

5) 현희정 역. (1997). 위의 책. p.133.

하여 전인으로서의 이상적인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체육의 목적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향상에 한정되었으나 현대의 체육은 인격의 발달을 통한 사회적 능력의 향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⁶⁾

이때 체육의 교육 목적에서 인격의 발달을 통한 사회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말에는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필히 수반되며, 또 인격발달 및 사회성 함양은 오늘날 교육 전체가 지향하는 목적이므로 자기실현이라는 무용의 교육 목적은 비단 무용만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실현은 학습자 스스로가 체험하고 체험된 경험을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재구성하는 ‘자기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기활동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술이다.⁷⁾ 그러므로 성장하는 인간의 자아를 통찰하고 형성시키는 자기실현은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성취될 수 있다. 또한 체육과 무용은 교육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체육은 스포츠 경기, 움직임 분석 및 기술습득, 유연성이나 근지구력 등의 체력단련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어⁸⁾ 체육교육의 핵심이 “신체발달” 및 “인격형성”에 있다면 무용교육은 창작, 공연 감상의 미적 체험을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 “창조성”, “전달성”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발견된다.⁹⁾

그러나 이러한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의 특성 및 무용과 체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교육에서 무용은 예술교육이 아닌 체육에서 교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용계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고 체육과 구분되는 무용의 교육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 무용과 체육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용과 체육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가장 먼저 무용과 체육은 모두 신체 움직임을 사용한다는 공통요소가 있음은 물론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체육이 현대 교육의 방향에 맞추어 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6) 이필근. (2009). 『체육원리』. 경기: 오산대학 산업기술연구소. p.30.

7) 안영길 외 역. (1984). 앞의 책. p.614.

8) 유정애. (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 대한미디어. p.43.

9) 현희정 역. (1997). 앞의 책. p.133.

체육은 전인적인 인간의 형성을 주된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창의력이 교육계의 큰 화두가 됨에 따라 체육교육도 무용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통한 창의성의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무용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무용과 체육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아직도 많은 무용교사들이 학습자의 내적 표현이나 심미적 인식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단지 학습자의 흥미나 사회적 유행에 맞추어 포크댄스(Folk Dance), 벨리댄스(Belly Dance), 또는 대중가수의 안무와 같은 춤들을 교사의 시범에 따라 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익히게 하는 활동에만 주력한다. 교사의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외워서 춤추는 무용은 반주에 맞추어 따라하는 체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원인들은 무용이 체육에서 교육되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더욱 깊게 만들게 한다.

무용이 체육에서 교육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고를 형성시키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밖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연구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 사상,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학자들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또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간단히 플라톤을 칭하는 수식어 즉 “서양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¹⁰⁾, “고대, 중세, 현대를 통하여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철학자”¹¹⁾, “최초의 체육 철학자”¹²⁾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플라톤을 모든 철학 사상의 출발로 보며 플라톤이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¹³⁾, 무엇보다 플라톤의 저서에서는 무용을 예술로 보면서도 동시에 체육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시, 음악과 함께 무용을 무시케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무시케란 곧 오늘날의 순수예술을 뜻하며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 효과를 가진 예술교육이다. 그런데 이후 『법률』에서는 무용을 무시케가 아닌

10) A. N. Whitehead. (1957).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 Harper & Row. p.1.

11) 안용규. (1998). 「플라톤의 체육사상에 관한 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1, p.181.

12) 위의 책. p.182.

13) 물론 모두가 플라톤의 사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체육계에서는 플라톤의 심신관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여러 입장에서 보고 있기도 하다.

김나스티케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김나스티케란 고대 올림픽 경기 종목 및 군사훈련과 같은 운동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기개를 기를 수 있는 체육교육이었다. 즉 플라톤은 무용을 예술교육인 무시케에서 다루면서도 무용을 예술이 아닌 체육교육인 김나스티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법률』에서의 글들은 『국가』에서 무용을 예술로 보았던 그의 견해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며 자연스럽게 “무용은 무시케인가 김나스티케 인가?” 즉 “무용은 예술인가 체육인가?”하는 무용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의문은 무용이 예술의 영역에서 교육될 수도 체육의 영역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하게 하여 무용이 체육과 예술 모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게끔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체육관련 서적과 논문에서 이러한 『법률』에서 글귀를 근거로 하여 무용을 체육교과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으며 또 고대 그리스의 신체문화를 탐구하는 연구에서도 무용을 예술과 동시에 체육의 영역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무용 전공자들조차도 이러한 체육계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플라톤의 언급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용을 체육의 하위 분야로 인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여인성(2003)은 플라톤의 법률편에 나타난 체육 내용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법률』의 문장을 인용하며 체육의 내용 및 방법론으로 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¹⁴⁾ 안용규(2000)는 체육이 신체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체육은 예술처럼 미학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 여기에서 플라톤의 철학사상을 근거로 들며 무용은 고대부터 체육과 함께 그 대상이 모두 사람이며 인간 움직임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는 동질성이 있으므로 보다 큰 신체문화라는 틀에서 무용은 체육과 함께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⁵⁾

물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학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예컨대 시, 음악, 무용은 하나로 여겨졌으며 수학은 철학과 같은 것

14) 여인성. (2003). 「플라톤의 법률편에 나타난 체육내용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pp.184-185.

15) 안용규. (2000). 「체육·스포츠, 무용 -미학에로의 초대」. 한국 스포츠 무용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세미나. p.14.

으로 또 올림픽 경기는 종교적 제례행사에서 오늘날 연극이라 볼 수 있는 비극경연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찌면 무용은 오늘날처럼 독립된 예술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시와 함께 또는 체육과 함께 여러 영역에 포함되어 언급되었던 것이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대가 문화의 비 분화 상태였으므로 무용을 체육과 함께 신체문화라는 틀에 위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시대가 문화의 비 분화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플라톤이 무용을 무시케와 김나스티케 둘 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일지라도, 또 고대부터 무용과 체육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라든가 오늘날 이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무용을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된다. 즉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무용을 다룰 때에는 위와 같은 체육적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무용의 관점에서는 이와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언급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플라톤은 그의 예술론에서 무용을 시, 음악과 함께 무시케 즉 예술로 보고 있으며 무시케는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고귀한 활동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육론에서는 예술교육인 무시케 교육과 체육교육인 김나스티케 교육이 각각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은 무용이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예술교육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 가치있는 무용교육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의 무용을 예술인 무시케라 하면서도 예술이 아니라 체육인 김나스티케에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고거나 무용이 체육의 영역에서 교육되어도 무방하다 생각한다면 이는 플라톤의 언급을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본 즉 체육적 입장에서만 바라본 판단이 될 수 있다. 플라톤의 언급은 그 해석의 관점에 따라 무용의 정체성 혼란이나 무용과 체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 오히려 오늘날 무용과 체육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라톤의 예술론과 교육론에 나타난 무용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무용과 체육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무용의 본질 및 무용과 체육의 차이를 확인하게 하여 무용은 예술이며 예술교육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의 절차로는 먼저 플라톤의 예술론 중 모방적 예술과 영감적 예술에 대해 살펴보면서 무용의 특성 또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을 통해 무용교육과 체육교육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논지를 진행함에 있어 바탕이 되는 문헌으로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와 『법률』이 기초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플라톤의 저서 『파이드로스』와 『이온』을 참고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미학, 예술사, 무용사, 체육사, 교육학 관련 문헌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참고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귀납적 추론방법을 실시할 것이다.

제 2 장 플라톤의 예술론과 무용

제 1 절 고대그리스의 예술개념

오늘날 우리가 ‘예술(Arts)’이라고 할 때면, 순수예술(fine arts)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연극, 미술, 문학, 음악, 무용 등 예술의 개별 장르를 예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예술이란 말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예술을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트(arts)’는 솜씨 즉 물품, 가옥, 동상, 배, 침대, 단지, 옷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솜씨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고 토지를 측량하며 청중을 사로잡는 데 필요한 솜씨까지를 뜻했다. 솜씨는 규칙들에 대한 지식에서 발휘되는 것이어서 결국 아트란 솜씨 그 자체, 규칙의 습득, 전문지식 등과 같은 이성적인 작업 및 그러한 이성에 기초한 법칙과 원리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제작에 적용되는 용어였다. 따라서 고대의 예술이란 기술적 활동인 수공업과 이성적 활동인 학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 예술의 개념은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때까지 지속되었다.¹⁶⁾

이처럼 고대에는 예술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 즉 예술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되는 예술의 각 장르들은 순수예술이라는 독립된 하나의 범주가 되지 못하고 제작기 여러 구분 속에서 흩어져 위치하고 있었다. 순수예술 중 건축이나 조각과 같은 일부만이 예술이라 여겨졌다. 그들의 사고에서 건축이나 조각은 ‘비례’라는 일정한 규칙과 지식을 이용한 일종의 제작물이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무용, 시, 음악 등 대부분의 순수예술들은 아예 예술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규칙이 아닌 영감이나 환상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는 예술이 아니었다. 영감과 환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무용, 시, 음악은 무시케(mousikē)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다.¹⁸⁾

16) W, Tatarkiewicz. (1980) / 손효주 역. (2008). *A History of Six-Ideas : An Essay in Aesthetics*. Warszawa: Polish Scientific Publishers. 『미학의 기본개념사』. 서울: 미술문화. pp.25-27.

17) 위의 책. pp.102-104.

18) 위의 책. pp.100-101, p.114.

‘무시케’란 무사(mousa) 여신들의 보호를 받는 모든 행위 즉 무사 신이 내린 영감과 환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시케가 신적 영감과 환상에 의한 산물을 가리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무용, 음악, 시의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주목했고 그리하여 당시 이성 · 지식 · 규칙 · 기술이었던 예술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으로 여겼다. 이것들은 당시 예술의 성격인 물질적 의미의 제작이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행위와는 반대로 일반적 법칙들의 소산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의 소산이며,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창조력의 소산이며, 기술이 아닌 영감의 소산이었다.¹⁹⁾

제 2 절 플라톤의 예술론

플라톤은 그의 수많은 저서에서 예술(오늘날의 예술)의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예술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숙련된 기술에 의한 모방적인 예술이며 다른 하나는 신적 영감에 의한 영감적인 예술이다. 다음에서는 모방적 예술과 영감적 예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플라톤의 예술론 속에 나타난 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모방적 예술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제 3권과 10권에서 예술과 관련된 모방(mimesis)에 대한 개념과 그 성격 및 서열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국가』 제 3권에서는 ‘모방’을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흉내 낸다는 의미에서 “목소리나 몸짓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닮게 한다는 것”²⁰⁾이라 하며, 이 용어를 행위자가 스스로 도구가 되는 예술인 음악과 무용에 적용시켰다.²¹⁾ 한편 제 10권에서는 모방의 개념을 회화와 조각에까지 확장시켜 화가는 장인의 제작물을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능력 즉 모방술(mimētikē)에 능한 사람²²⁾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회화와 함께 기술적인 시를 언급하며 기술적

19)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09.

20) Plato. / 박종현 역. (2005). *Republic*. 『국가』. 서울 : 서광사. 393c5-6.

21) 이승건, 안용규. (2005). 「‘미메시스(mimesis) 미학’에서 본 무용예술」. 『한국체육철학회지』, 13(2), p.258.

22) 박종현 역. (2005). 위의 책. 598a-c.

인 시를 쓰는 시인은 문장 기술에 의존하여 대상의 실재를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²³⁾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 모방의 개념이란 “자연의 외면적 재생”, 또는 “대상의 충실한 복사 내지는 복제”를 의미한다.²⁴⁾

플라톤은 대상의 외면을 복제하는 모방에 대해 “모방자는 비실재적 사물을 산출한다”라고 하며, 모방이란 에이돌라(eidola), 즉 비실재적 환영, 허구적인 것, 허상, 환영을 창출하는 것이라 말한다.²⁵⁾ 비실재적, 허상, 환영은 진리 혹은 본질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화가나 기술적인 시인이 모방하며 나타내는 것은 실재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의 외면만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실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모방이 “진리로 나아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는 『파이드로스』에서 시가 문장 기술에 치우쳐서 기술적인 모방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수공 기능에 불과한 회화와 같이 저급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시각예술과 모방적인 시를 기술의 수준으로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물들을 성실한 수공(手工)의 작품보다 더 아래인 가장 낮은 단계로 보았다. 모방예술의 저급함에 대해서는 『국가』 제 10권의 침대를 그리는 화가의 기술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²⁶⁾

플라톤은 『국가』에서 침대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그는 “침대의 본질(idea)”이 최상급이며, 그 다음은 목수가 만든 “현상의 침대”이고, “현상의 침대”를 눈으로 보고 화가가 이를 모방해 그린 “침대 그림”은 마지막 등급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화가에 의해 그려진 침대는 목수가 만든 침대를 모방한 모사물(eidola)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플라톤은 침대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은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모든 침대가 지향하는 침대의 본질(idea)이라 하였다. 목수는 머릿속에 그려진 침대의 본질을 모방하여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화가의 그림은 이미 목수에 의해 모방된 침대를 다시 한 번 모방하였기 때문에 진리에서 세 단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침대 자체를 만들어내는 목수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모방하는

23)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28, p.130.

24) 이승건, 안용규. (2005). 앞의 책. p.258.

25)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26.

26) 위의 책. pp.129-130.

화가에 비해 더 우월해지며 곧 화가와 같은 예술가의 작업은 참된 세계인 이데아 즉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어 모방의 서열 중 가장 낮은 등급이 된다.²⁷⁾

이와 같이 예술에서의 모방이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 것은 그것이 진리와는 거리를 둔 채 사물의 외형만을 복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모방적 예술은 특별한 기술을 다루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며 결국 예술가처럼 단지 기술적 모방을 하는 사람은 보편성과 완전함을 지닌 진리의 세계인 선의 이데아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데아의 그림자에만 머무는 것이다.²⁸⁾

2. 영감적 예술

모방적 예술은 회화, 조각, 음악, 무용, 그리고 기술적인 시를 포함하며 이들은 단지 모방적 기술에만 의존하여 사물의 실재가 아닌 외형만을 복제하므로 이들은 가장 낮은 모방의 등급에 속하며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 모든 예술가가 언제나 저급하게 취급되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예술가들 중에서도 시인이 모방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면 철학자와 같이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시를 ‘영감을 부여받은 시’와 ‘기술적인 시’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종류의 시 중 영감을 부여받은 시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시가 기술이 아닌 영감을 부여받아 이루어진다면 진리를 담고 있는 세계인 ‘선의 이데아(Idea)’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플라톤이 영감을 부여받은 시를 화가의 작업이나 모방적 시인의 작업 즉 기술적인 시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는 『이온』에서 “모든 훌륭한 서사시인들은 그 좋은 시들을 자신의 기술의 힘을 빌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감 받고 열광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만든다. 훌륭한 서정시인들도 마찬가지이다.…시인은 영감을 받아서 제정신을 잃기 전까지는 시를 지을

27) 박종현 역. (2005). 앞의 책. 597-598.

28) 이승건. (2005). 앞의 책. p.258.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인들은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시의 본질적 요소로서 신적인 영감을 언급한다.²⁹⁾

또한 『파이드로스』에서는 훌륭한 시를 짓게 하는 영감은 무사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며 무사 신들로부터 받은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 시는 모방이나 기술공의 판에 박힌 작업과는 다른 것이라 언급한다. 플라톤에게 화가의 작업은 언제나 저급한 모방술에 속하지만 시인의 작업은 그 방법에 따라 저급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사람을 지배하는 열광들 중의 하나는 무사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며 무사 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면 그 영감은 “영혼을 자극하여 노래와 다른 시를 제작하게끔 한다.... 그러나 스스로 예술에 의해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신적 광기 없이 무사 신들의 문 앞에 온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영감을 받은 광기 어린 사람의 시 앞에서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의 시는 무화되고 만다.”고 하며 기술적인 시의 열등함과 비교되는 영감을 부여받은 시의 고귀함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³⁰⁾

이처럼 성격이 대비되는 두 종류의 시는 『파이드로스』의 내용 중 플라톤이 정한 인간의 영혼 및 직무위계 등급에서 각각 다른 자리에 위치하며 나타난다. 플라톤이 정한 등급은 아홉 단계이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philosophos)이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philokalos) 또는 문예를 알고(mousikos) 사랑을 아는 사람(erotikos), 입법 군주나 전사 통치자, 정치가나 재산가, 운동선수와 의사, 예언자나 사제, 시인을 비롯한 모방의 기술자, 장인이나 농부, 소피스테스나 민중 선동가, 참주(僭主:비합법적 수단으로 지배자가 된 사람)이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philokalos) 또는 문예를 알고(mousikos) 사랑을 아는 사람(erotikos)은 모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philosophos) 즉 철학자의 다른 이름이며 철학자의 다양한 측면을 가리킨다.³¹⁾ 여기서 모방적 시인은 장인이나 농부와 함께 여섯 번째 단계에 속하는 반면 영감 아래서 작용하는 예술가는 애지자, 즉 철학자와 함께 가장 높은 단

29)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29.

30) 위의 책. p.128.

31) Plato. / 조대호 역. (2008). *Phaidros*. 『파이드로스』. 서울 : 문예. 248d.

계에 속하고 있다.

플라톤은 애지자 즉 규칙이나 기술이 아닌 영감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이들을 ‘무시코스(mousikos)’라 불렀다. 무시코스는 시인, 그리고 오늘날의 음악가와 무용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무사 신의 영감을 소유하고 있으며 창조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무시코스는 플라톤의 직무위계에서 철학자와 함께 첫 번째 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영감에 지배를 받는 무시코스가 철학자만큼이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시코스의 비이성적이면서도 신비적인 면이 지적사고나 기술적 능력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적 차원의 사고를 넘어 신성한 존재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정신적인 세계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시코스에 해당되는 시인과 음악가와 무용가의 능력은 예언력과 관계되었으며 곧 진리라 여겨졌다. 이에 관해 플라톤은 『이온』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이 말하는 것은 진실”³²⁾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파이드로스』에서는 ‘시인’을 ‘광인(狂人)’으로 표현하면서 “진정한 시인은 단순히 언어적 기교나 기술에 능한 자가 아니라, 신적 영감 아래 진리를 획득하는 숭고한 존재”라 언급한다.³³⁾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영감적 예술은 신적 영감을 부여받은 정신적 활동이자 창조적 활동으로 결국 영감에 의해 작업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획득하여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참된 세계인 선의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 3 절 플라톤적 무용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의 예술이란 학문이나 기술 같은 이성에 기초한 모든 제작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의 순수예술은 고대의 예술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화를 제외한 시, 음악, 무용은 무시케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플라톤의 『국가』, 『이온』, 『파이드로스』와 같은 저서에서는 예술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는 예술을 ‘모방적인 예술’과 ‘영감적인 예술’로

32) Plato. / Benjamin Jowett. (tr.). (1999). *Ion*. Gutenberg eBook. 543b.

33) 조대호 역. (2008). 앞의 책. 245a.

나누어 모방적 예술을 저급하며 배척해야 할 예술로 보고 영감적 예술을 고급한 행위로 보았다. 그것은 영감적 예술이 무사 신의 영감을 부여받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 또는 진리라고 여겨진 정신적인 활동이었지만 모방적 예술은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이 아닌 기능이자 진리와는 거리가 먼 단편적인 지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은 진리획득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유형의 지식이며 더 높은 단계의 정신적 활동이었지만 반면 영감이 아닌 기술적 능력에 의존하여 대상의 진리가 아닌 외형만을 모방하는 모방적 예술은 매우 열등하다고 하며 이 둘의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방적 예술에 해당하는 것은 화가의 작업이나 기술적 시가 있었고, 영감적 예술에는 무사 신의 영감을 부여받은 시가 있었다. 시는 모방적 예술과 영감적 예술 모두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플라톤이 모방과 영감에 대해 말할 때 주로 등장하는 시 혹은 시인이란 단지 오늘날의 시 그러니까 ‘운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 시는 시각예술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음악이나 무용으로부터는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오히려 시는 현대의 예술체계에서보다 더 음악이나 무용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모든 예술의 후원자였던 무사 신들은 음악과 무용을 시와 똑같은 정도로 후원했다.³⁴⁾

그러므로 시는 “협의의 시”와 “광의의 시”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시가 오늘날 음악과 무용과 분리된 시 즉 ‘운문’을 뜻하는 것이라면 플라톤이 가리키는 시는 광의의 시로 오늘날과 같은 협의의 의미에서 시인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음악과 무용을 포함한 예술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이 가리키는 시가 음악과 무용을 포함한 광의의 시를 의미하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 예술이 언어, 멜로디, 리듬을 사용함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와 음악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에게는 글로 기록되거나 책으로 된 시는 없었고 말로 읊고 노래로 부르는 시밖에 없었다. 음악 역시 순수한 기악은 없었고 근본적으로 음성에 의한 것이었다. 즉 시와 음악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런데

34)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22.

언어는 멜로디 및 리듬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무용은 언어의 성격 중 리듬의 요소를 공유하면서 시, 음악과 같은 것이라 여겨졌다. 이러한 요소의 공유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시, 음악, 무용을 각각의 것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³⁵⁾ 따라서 플라톤이 언급한 시는 광의의 의미 즉 오늘날의 예술로 음악과 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플라톤의 예술론에 따르면 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플라톤의 언급에서 등장하는 시는 광의의 의미이며 모방이 아닌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는 무사 신의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시케였으므로 무용은 무시케 즉 오늘날의 개념에서 예술이었다.

이러한 무시케는 무사 신의 영감을 부여 받은 것으로 곧 정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또 플라톤이 나눈 두 종류의 시 중 영감에 의한 시는 신적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은 인간의 직무위계 서열 중 무시코스라는 이름으로 철학자와 함께 첫 번째 지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므로 무용 역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고귀한 정신적 활동으로 고대부터 무용은 음악과 시와 함께 개별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각각의 기술을 익히는 기능술과는 달리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이 무용을 숭고한 활동으로 보았다는 견해는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통해 더욱 잘 증명된다. 고대인들의 실제 무용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누리하고자 했던 노력은 그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무용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였다. 예컨대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자 축제였던 제의의식에서 무용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사적인 자리에도 무용은 빠질 수 없는 요소였고,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와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한편 시인의 작업이 모방이 아닌 영감에 의한 것일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무용 역시 기술적인 무용이 아닌 예술적인 무용이 추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영감으로 작업하는 시인을 숭배하고 기술적 능력에 치중한

35)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p.100-101, p.114.

시인은 장인으로 취급하며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높은 단계에 놓았다. 무용 또한 갖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용은 기술적 능력에 치중한 모방적 작업보다는 영감을 추구할 때 보다 가치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다. 영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정신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상상력과 창의력과 연관되며 숙련된 기술과는 반대된다. 이는 무용가를 비롯한 현재의 모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작업과도 일맥상통한다.



제 3 장 플라톤의 교육론과 무용

플라톤이 무시케를 고급정신능력을 사용한 것이라 하며 고귀한 활동으로 본 만큼 그의 교육론에서도 무시케는 교육의 제 1단계에 등장하며 필수적인 교육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무시케는 인격의 함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무시케 교육은 도덕적으로 선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의 국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었다. 플라톤이 가리키는 무시케는 음악, 시, 무용을 뜻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무용은 무시케로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교육이었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은 『국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이와 함께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의 교육론의 1단계에서는 무시케 교육과 함께 김나스티케 교육이 등장한다. 플라톤은 이 두 교육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고 하며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때 플라톤은 무용을 영혼을 위한 교육인 무시케로 보면서도 김나스티케 교육 즉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종의 체육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서 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언급은 무용이 무시케인가 김나스티케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플라톤의 교육론에 등장하는 무용의 교육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반적인 플라톤의 교육사상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플라톤이 어린 시절의 교육으로 강조한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을 살펴보고 플라톤의 언급 속에서 당시 무용은 어떤 교육이었으며 무용은 무시케와 김나스티케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제 1 절 플라톤의 교육론

1. 교육사상

플라톤은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선한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의 이념을 두었다. 그는 선한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에 대한 관념’을 가진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한다며 철인정치(哲人政治)를 주장하였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 당시 아테네는 30년 동안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의 패배로 국가의 질서에 혼란이 생겼으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당면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테네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플라톤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하고 정의로운 인간, 즉 철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체제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³⁶⁾

따라서 플라톤의 교육철학은 도덕적으로 선한 국가 즉 이상국가(理想國家)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국가'는 공정성 또는 정당성이 있는 국가로 개인의 행복과 훌륭한 삶을 필연적으로 추구한다. 플라톤은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개개인의 인격이란 인간의 본성인 영혼을 지칭하는 것으로, 곧 인격의 발달이란 규정되지 않는 영혼을 동굴과 같은 무지와 어둠의 세계에서 동굴 밖 실재의 세계인 '이데아(idea)'를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이 동굴 밖으로 나와 이데아를 향하게 되면 욕망(epithumetikon), 기개(thumoeides), 이성 또는 철학(logistikon)으로 구성되어있던 영혼이 절제(sōphrosynē), 용기(andreia), 지혜(sōphia), 정의(dikaiosynē)와 조화를 이루면서 덕(德:aretē)을 갖춘 인간이 된다. 덕을 갖춘 인간이란 고대 그리스에서 최고의 가치였던 아름답고 선한(kalokagathia) 인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자질을 갖추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의미하는 칼로카가토스(kaloskagatos)가 될 수 있다.³⁷⁾ 아름답고 선하여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써 이데아를 실현하고 이상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영혼이 올바른 것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영혼을 양육하고 길들여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는 것이 플라톤 교육의 본질이다.³⁸⁾

2. 교육단계

36) 박의수, 강승규, 정영수, 강선보. (200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 동문사. pp.162-163.

37) 손청문. (1989). 「플라톤의 paieia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p.13, p.72

38) R. L. Nettleship. (1935). / 김안중 역. (1989).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플라톤의 교육론』. 서울 : 서광사. pp.25-29.

플라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제 1단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17세까지로 무시케(mousikē)와 김나스티케(gymnastikē)를 배우며 도덕적 품성 및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데 주력하는 기초도야기이다. 제 2단계는 17세부터 20세까지로 체육(gymnastikē)과 군사훈련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맡아야 하는 군사훈련기 또는 체력단련기이다. 제 3단계는 20세에서 30세까지로 수학, 기능학, 천문학, 화성학을 배움으로써 이성적 사고를 개발하도록 하는 과학적도야기이며, 제 4단계는 30세에서 35세까지로 변증법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철학적도야기이다. 마지막 5단계는 35세에서 50세까지로 군사 및 정치 실무에 참가하며 국가의 정사를 돌보는 일에 대한 실제 경험을 쌓는 실천연구기간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교육의 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3단계부터는 그에 맞는 능력이 입증된 아이들을 선별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습의 방법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³⁹⁾

제 2 절 무시케 교육과 무용

1. 광의의 무시케와 협의의 무시케

앞 장에서 무시케가 시, 음악, 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듯 무시케는 오늘날의 순수예술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무시케는 이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반대로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무시케는 그 의미에 따라 ‘광의의 무시케’와 ‘협의의 무시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무시케’는 음악 또는 시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무시케는 오늘날 음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 ‘뮤직(music)’의 어원이 된다. 이 때문에 플라톤의 교육론에 등장하는 무시케 교육을 음악교육으로 번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플라톤은 교육의 1단계에서 무시케 교육을 언급할 때 무시

39) 전태련. (2006). 『함께하는 교육학』. 서울 : 마이썸, pp.187-188.

케 교육의 내용으로 음악과 시를 언급하고 있지만 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시케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음악과 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무시케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광의의 무시케’에는 시, 음악과 함께 무용이 포함된다. 앞서 플라톤의 예술론에서 다루었듯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시, 음악, 무용이 서로 분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하나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또 플라톤의 교육론에 등장하는 무시케 교육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용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플라톤은 무용을 무시케와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 음악 그리고 무용이 복합된 활동인 ‘코레이아’가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케에 영감을 주는 9명의 무사 신 중에는 ‘테르프시코레’라는 무용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 9명의 무사 신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클리오네 역사의 무사였고, 에우테르페는 음악의 무사, 탈리아는 희극의 무사, 멜포메네는 비극의 무사, 테르프시코레는 무용의 무사, 에라토는 비가의 무사, 폴리힘니아는 서정시의 무사, 우라니아는 천문술의 무사, 칼리오페는 변론술과 영웅시의 무사였다. 따라서 광의의 무시케는 이렇게 시, 음악, 무용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무시케는 이 세 예술을 비롯한 더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시케에 영감을 주는 9명의 무사 신들은 오늘날 예술로 분류되는 시, 음악, 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 학문으로 여기는 것들도 후원하였다. 위에서 9명의 무사 신을 나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무시케에는 서정시 비가 희극, 비극, 영웅시 등의 시와 음악, 무용 그리고 역사, 천문술, 변론술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때문에 영감을 부여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무시코스’는 시인이거나 음악가 그리고 무용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진정 교육을 잘 받고 교양을 갖추었으며 예술을 이해하고 또한 실기에 능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무시케는 교양 있고 지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⁴⁰⁾

40)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p.122. p.98.

2. 무시케 교육 사상

플라톤은 개개인의 인격성장을 통한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 5단계를 제시하며 그 중 1, 2단계를 필수 과정이라 하였다. 플라톤의 교육 단계에서 어린아이들과 유년기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필수과정인 조기교육을 ‘파이데이아(paideia)’라고 하는데 파이데이아란 어린이(pais)를 양육하여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교육의 성과로서의 교양이나 학식을 의미한다.⁴¹⁾

플라톤은 이러한 조기교육에서는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이 말한 무시케(mousikē) 교육은 정신을 위한 일종의 예술교육이었으므로 광의의 의미에서 무용, 음악, 시를 포함한 것이며, 김나스티케(gymnastikē)교육은 신체를 위한 일종의 체육교육으로 여기에는 각종 운동경기 및 군사훈련이 포함된다. 이때에 플라톤은 이 두 교육이 어느 한 곳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⁴²⁾ 이에 대한 설명은 그의 저서 『국가』와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무용교육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몸을 위한 교육으로는 김나스티케(gymnastikē)가 있겠으며, 영혼(psyche)을 위한 교육으로는 무시케(mousikē)⁴³⁾가 있겠네.....”⁴⁴⁾

“신이 이들 두 가지 교육, 무시케(mousikē)와 김나스티케(gymnastikē)를 인간들에게 주었는데.....말하자면 이 양면이 적절한 정도만큼 조정되고 이완됨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무시케와 김나스티케를 가장 훌륭하게 혼합하여 이를 영혼에 가장 알맞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완벽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조화로운 사람이며 현악기의 현들을 서로 조율해 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41) 손청문. (1989). 앞의 책. p.4. 재인용, p.49.

42) 안용규. (1998). 앞의 책. p.190.

43) 무시케(mousikē)는 시가(詩歌) 혹은 음악으로, 김나스티케(gymnastikē)는 체육이나 체조로 번역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4) 박종현 역. (2005). 앞의 책. 376e.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여 지당할 겐세.”⁴⁵⁾

위와 같이 플라톤은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제 1단계에서도 무시케 교육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육체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은 “습관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때가 유년기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교육의 출발은 영혼의 교육인 무시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⁴⁶⁾ 플라톤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 런즈데일(Steven H. Lonsdale)은 “이는 아직 이성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먼저 미덕에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⁴⁷⁾ 즉 플라톤에게 미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으므로 아이들은 가장 먼저 미덕의 습관을 배워야 하며 이는 무시케 교육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시케 교육이 인간 본성에 내제된 욕정적이고 난폭한 심성들을 온순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시케는 인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었다.

플라톤은 무시케의 참된 기능에 대해 “영혼의 열망에 고귀함을, 그 사랑에는 아름다움을 불어넣어 주며, 지각을 맑고 깨끗하게, 정서를 세련되고 균형 있게 해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 “이성이 무시케로 길들여진 천사는 덕을 수호하는 유일한 천사”라고 말한다.⁴⁸⁾ 이것으로 보아 플라톤이 생각한 예술교육은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기초이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도덕교육에 해당하며, 교육의 목표로 보면 주로 정의적 영역에 가치를 두고 행해졌다고 정리된다. 플라톤의 교육철학이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만큼 실제로 무시케는 일반적으로 읽기나 쓰기 이전에 어린이들이 맨 처음 받는 교육이었다.⁴⁹⁾

당시 무시케 교육이 미덕을 함양해주는 일종의 도덕교육이었으므로 플라톤은 무시케 교육을 경시할 경우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여 결국 정치적, 사회적

45) 박종현 역. (2005). 앞의 책. 412a.

46) 손청문. (1989). 앞의 책. p.50.

47) 이진이. (1999). 「플라톤의 우주적 무용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37. 재인용.

48) 김안중 역. (1989). 앞의 책. p.58, p.151.

49) G. Prudhommeau. (1942). / 양선희 역. (1995). *Histoire de la danse*. 『무용의 역사 I』. 서울 : 삼신각. pp.205-206.

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된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 즉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가장 낮은 부분인 ‘욕구(epithymetikon)’, 중간 부분인 ‘기개(氣慨:thymoeides)’, 최상위 부분인 ‘철학(logistikon)’으로 구성된다. 이때 영혼의 낮은 부분인 욕구가 과해지면 거칠고 야만적인 짐승처럼 변하고 기개가 과해지면 용기가 아닌 공격성과 잔인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영혼의 낮은 부분들은 영혼의 최상위 부분인 철학을 길러 조절될 수 있다. 철학적 부분은 포악한 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상호 적대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주고 서로를 화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의 철학적 부분을 기르기 위해 미덕을 함양해 주는 도덕교육인 무시케 교육을 강조하였다. 플라톤이 본 최상의 이상적인 상태는 올바른 교육제도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무시케는 경시되거나 태만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교육이었던 것이다.⁵⁰⁾

3. 무시케 교육과 코레이아

무시케 교육을 강조한 플라톤의 언급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법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국가』에서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교육(paideia)으로 무시케와 김나스티케를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교육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플라톤은 춤 출 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을 의미하는 ‘아코루투스(achoreutos)’라고 부르며⁵¹⁾ 무용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피력한다.

플라톤은 『법률』 제 2장에서 무용에 대한 단어로 추상명사인 ‘코레이아(choreia)’ 또는 ‘코러스(chorus)’를 사용하며 이것이 춤(orkhēsis)⁵²⁾과 노래(ōde)가 합쳐진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⁵³⁾ 그런데 당시에는 시와 노래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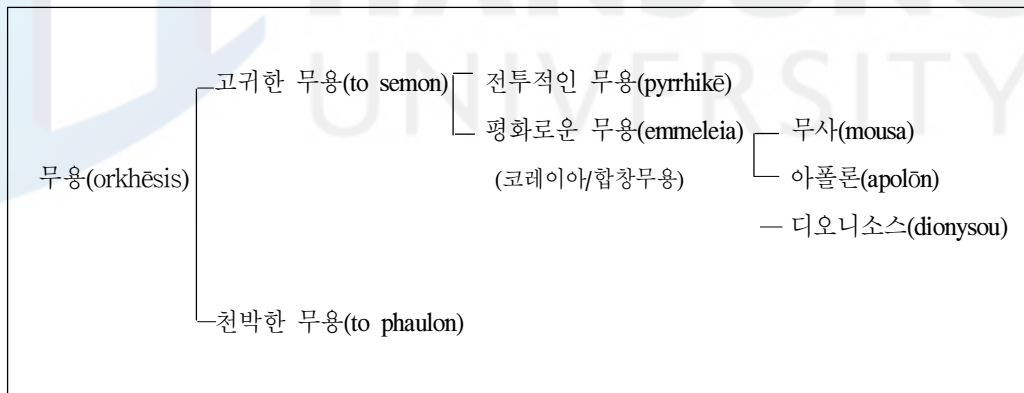
50) 김안중 역. (1989). 앞의 책. pp.118-125.

51) Benjamin Jowett. (tr.). (2003). 앞의 책. 654a.

52) 플라톤 『법률^{laws}』의 원전인 nomoi에서는 춤(Dancing)을 가리키는 용어로 choreia와 함께 orkhēsi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53) 플라톤은 ‘코러스’와 ‘코레이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별을 두자면 ‘코러스’는 노래와 무용으로 구성된 합창무용을 하기 위한 행위자나 단체의 의미가 강하며, ‘코레이아’는 합창무용의 무용에 음악과 시가 가미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의 속에서 무용이 주가 되는 축제형태의 활동을 칭할 때, ‘코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용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코레이아(choreia)’란 곧 시, 음악, 무용이 결합된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레이아는 합창무용(Choral Dance)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쥘린스키(T. Zieliński)는 이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무용이 중심을 이루고 거기에 음악과 시가 첨가된 “삼위일체의 코레이아(triune choreia)”라고 묘사한다.⁵⁴⁾ 이러한 코레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제사의식에서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또 추수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기위해 행해진 것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극장 안의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행할 만큼 제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⁵⁵⁾ 플라톤은 이와 같은 코레이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역할을 지정하고 코레이아의 조직과 행정을 기술하면서 이 활동이 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코레이아를 포함한 다른 여러 무용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은 플라톤이 구분한 고대 그리스의 무용이다.



[표 1] 『법률』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의 무용

54) 이승진. (2007). 미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서양의 신체문화.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p.95. 재인용.

55) Jane Ellen, Harrison. (1948) / 오병남 역. (1996). *Ancient art and ritual*. 『고대 예술과 제의』. 서울 : 예전사. pp.111-115.

플라톤은 모든 시민을 위한 무용을 가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고귀한 무용(to *semon*)”과 “천박한 무용(to *phaulon*)”으로 구분한다. 고귀한 종류의 무용은 고결한 존재 즉 고귀한 신체와 풍요로운 정신을 본받는 진지한 성격의 무용으로 그 종류는 전사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전투적인 무용(*pyrrhikē*)과 신을 숭배하며 평안함을 기원하는 평화로운 무용(*emmeleia*)의 두 가지로 나뉜다. 평화로운 무용이란 무용과 시와 음악이 결합된 합창무용으로 곧 코레이아를 뜻한다.⁵⁶⁾ 코레이아는 전투적인 무용과 함께 고귀한 무용의 부류에 속하며 연령에 따라 무사(*choros tōn Mousōn*), 아폴론(*choros tou Apollōnos*), 디오니소스(*choros tou Dionysou*)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즉 코레이아는 나이에 따라 각기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달랐는데 무사를 모시는 축제는 어린이들로 구성되었고, 30세 이하의 남성들에게는 아폴로를 섬기게 하며, 30세에서 60세사이의 시민들은 디오니소스를 섬긴다.⁵⁷⁾ 그러나 코레이아라고 해서 모두 평화로운 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 코레이아 중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룹은 술취한 자들을 모방하는 것들이므로 전투적인 무용과도 평화적인 무용과도 관계없이 따로 떼어놓은 다음 시민에 적합한 것(*politikon*)이 아닌 부류에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⁵⁸⁾

한편 천박한 종류의 무용은 저급한 존재와 추한 신체의 움직임을 본받는 무용으로, 어느 정도의 고결함이나 규제 없이 웃음을 자아내려는 코믹스러운 캐릭터를 모방하는 춤이 여기에 해당된다. 플라톤은 진지한 것은 웃음 없이는 이해할 수 가 없으므로 이러한 춤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⁵⁹⁾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제사의식으로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를 제외하고 고귀한 종류의 무용에 속했던 코레이아는 사회 지도층의 지휘아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코레이아가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코레이아에는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코레이아가 갖는 교육적 가치란 『국가』에서의 무시케 교육과 같은 것으

56) Plato. / 박종현 역. (2009). *laws*. 『플라톤의 법률』. 서울 : 서광사. 814e-815b.

57) 위의 책. 665a.

58) 위의 책. 815b-815d.

59) Benjamin Jowett. (tr.). (2003). *op.cit.*, 815a.

로 『법률』에서 플라톤은 코레이아가 아이들의 첫 교육(paideia)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교육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⁶⁰⁾ 고 말하며 이 활동이 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훌륭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춤추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 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물론 춤과 노래에 있어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개인의 성향(physis)이나 습관(ethos)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절대적인 덕(aretē)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플라톤은 나라마다 젊은이들이 덕을 모방한 아름다운 자세(skhēma:춤사위)와 아름다움 노래가락(melos)들을 익히면 가장 올바르게 가장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¹⁾

이어 플라톤은 무용과 음악의 복합 형태인 코레이아가 덕스러운 인간을 만드는 것 즉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 음악과 무용을 구성하는 리듬과 조화라는 요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코레이아는 ‘리듬(rhythmos)’과 ‘조화(harmoni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리듬과 조화는 “인간의 영혼에 가장 쉽게 스며들고, 예의바름을 지니고 올바르게 잘 행동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과 무용은 시민의 미덕에 기여한다.”⁶²⁾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리듬과 조화를 포함한 무용과 음악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예술에서 리듬과 조화의 형식이 옳은 것을 향할 때 인간의 행위도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결국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신을 다듬어 인격을 함양해주는 교육활동인 무시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무용과 음악의 기능을 알았으므로 무용과 음악의 적절한 활용은 이상적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무시케이자 무시케에 수반되는 코레이아였던 무용은 인간의 상위 정신능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예술이었으며 그 속에 구성된 리듬과 조화가 인격을 함양해주는 예술

60) 박종현 역. (2009). 앞의 책. 672e.

61) 위의 책. 654b-662d.

62) Benjamin Jowett. (tr.). (2003). op.cit., 664c-665a.

교육이었던 것이다.

제 3 절 김나스티케교육과 무용

1. 김나스티케 교육사상

플라톤은 어린 시절의 교육은 인격의 기초를 닦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한 교육으로 무시케 교육을 들고 무시케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시케 교육으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인격이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철학적 부분(logistikon)을 기르는 것으로 철학적 부분은 자칫 포악하고 거칠어질 수 있는 인간본성의 가장 낮은 부분인 ‘욕구(epithymetikon)’와 중간 부분인 ‘기개(thymoeides)’⁶³⁾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시케 교육의 경시는 사회적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시케 교육의 편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 부작용이란 인간의 온순한 성격을 나약함이나 유약(柔弱)함으로 흐르게 만들고 섬세한 성격을 신경질적인 조바심과 불안정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⁶⁴⁾ 플라톤은 무시케 교육에만 지나치게 치중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나스티케(gymnastikē) 교육을 언급한다. 즉 무시케 교육은 반드시 김나스티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이 두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나스티케란 ‘김나시온(gymnasion: gymnasium: 김나지움)’에서 행해졌던 운동경기 및 군사훈련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김나스티케에는 고대 올림픽에서 행해졌던 다섯 가지 경기(pentathlon) 즉 달리기, 뽀뛰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레슬링이 포함되며 그 밖에도 수영, 오늘날 격투기와 유사한 판크라티온(pankration), 그리고 군사훈련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⁶⁵⁾

이러한 김나스티케 교육은 태어나기 전부터 17세까지 플라톤 교육의 제 1

63) 기개는 ‘티모스(thymos)’ 또는 ‘토 티모에이데스(to thymoeides)’로 영어로는 ‘spirited part’라 쓰이기도 하며 ‘spirit’는 물론 ‘의지’로 번역될 수 있다. 김안중 역. (1989). 위의 책. p.33.

64) 김안중 역. (1989). 앞의 책. p.39.

65) 하남길 외. (2007).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경남 : 경상대학교출판부. p.27.

단계에서 무시케 교육과 함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어 17세부터 20세까지 교육의 제 2단계에서도 군사훈련과 함께 언급된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러한 김나스티케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신체의 발달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체활동을 통해 ‘기개(thymoeides)’를 기르는 것이라 한다. 기개는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 본성의 딱딱한 부분”으로 올바르게 길러질 경우 참된 용기로 발전될 수 있다.⁶⁶⁾ 따라서 온순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성질을 지닌 영혼의 철학적 부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개를 기르는 김나스티케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기개를 길러 무시케 교육이 편중되었을 때의 폐단을 막기 위해 무시케 교육과 함께 김나스티케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법률』에서 김나스티케와 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은 김나스티케 교육이 무시케 교육과는 다른 교육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플라톤은 김나스티케 교육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종의 체육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서 무시케의 하나인 무용을 언급한다. 플라톤은 무용을 예술인 무시케에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법률』에서는 무용을 체육인 김나스티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플라톤이 무용의 종류를 나눈 부분에서도 이러한 언급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1) 교육의 두 종류에서 김나스티케와 관련된 무용

『법률』 제 7장을 보면 플라톤은 교육의 과목(ta mathēmata)을 크게 ‘김나스티케((gymnastikē)’와 ‘무시케(mousikē)’로 나누며 무시케는 정신의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반해 김나스티케는 신체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신체의 교육인 김나스티케를 다시 둘로 나누는데 이중의 하나가 ‘무용(orkhēsis)’이고 다른 하나는 ‘레슬링(pale)’⁶⁷⁾이라고 한다.⁶⁸⁾ 『법률』에서의

66) 김안중 역. (1989). 위의 책. p.33.

67) 플라톤 『법률(laws)』의 원전인 nomoi에서는 레슬링(Wresling)을 가리키는 용어로 p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분류에 따르면 무용은 예술인 무시케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체육인 김나스티케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무용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 그는 김나스티케의 일부로 다루어진 무용을 다시 세분화 하여 그 중 한 종류는 “무사의 이야기를 모방하여 위엄과 자유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건강한 상태와 날렵함 및 아름다움을 위해 몸 자체의 사지들과 부분들의 굽힘과 펴의 적정성을 지킴으로써, 이것들 각각에 율동적인 운동이 부여되어, 이것이 모든 춤에 충분히 퍼짐과 동시에 동반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⁶⁹⁾

이러한 언급을 볼 때 무용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무사의 이야기를 모방한다는 점에서 무시케 활동의 일부인 코레이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체의 운동 및 발달이라는 점에서는 김나스티케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플라톤이 신체발달 및 기개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무용을 김나스티케 즉 체육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무용의 종류에서 김나스티케와 관련된 무용

[표1]과 같이 플라톤은 『법률』에서 고대 그리스의 무용의 종류를 나열하고 각 무용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모든 시민을 위한 무용을 ‘고귀한 무용(to semon)’과 ‘천박한 무용(to phaulon)’으로 구분하며 고귀한 종류의 무용으로 코레이아와 함께 ‘피리케(pyrrhikē)’라고 부른 전투적인 무용 또는 전쟁과 관련된 무용(pyrrhikē orkhēsis)을 언급하였다. 이어 코레이아는 노래와 춤의 복합된 행위로 제의적인 성격을 지닌 예술적 활동이며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아테네를 경배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⁷⁰⁾ 실제로 당시에 무용은 심각한 전투연습으로 간주되었다.⁷¹⁾

이것으로 볼 때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나스티케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과 관련

68) 박종현 역. (2009). 앞의 책. 795d-e.

69) 위의 책. 795e.

70) 위의 책. 814e-815b.

71) Curt .Sachs. (1933). / 김매자 역. (1983). *Eine Weltgeschichte des Tanzes*. 『세계무용사』. 서울 : 풀빛. p.297.

된 무용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은 무용이 신체를 발달시키고 기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을 김나스티케에 포함시킨 것과 유사한 부분이 된다.



제 4 장 플라톤에 있어서 무용과 체육

앞 장의 플라톤의 교육론에서는 무용은 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는 무시케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김나스티케 즉 체육교육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언급은 자칫 무용이 예술의 영역에서도 교육될 수 있는 것이며 체육의 영역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하여, 마치 무용이 체육과 예술 모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플라톤의 언급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는 오늘날 무용과 체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무용과 체육은 둘 다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모두 신체발달을 이룰 수 있는 교육활동이 된다. 그러나 신체를 발달시킨다는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고거나 무용이 체육의 영역에서 교육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플라톤의 언급을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본 즉 체육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플라톤이 무용을 무시케 교육으로 보면서 무용이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인 예술임을 분명히 했고, 또 모든 시민을 위한 제의적 활동인 코레이아에 무용을 시와 음악과 함께 놓으며 코레이아가 무시케 교육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체육과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분명히 구분하며 각각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름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체육은 신체 단련과 동시에 영혼의 3요소 중 기개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예술은 영혼의 3요소 중 철학적 측면을 길러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을 예술인 무시케라 하면서도 왜 무시케인 무용을 예술이 아닌 체육에서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을 파악하는 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플라톤이 김나스티케에 무용을 포함시켰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군사훈련으로 사용되었던 전쟁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다음 무용이 가졌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무용의 요소 및

효용성을 근거로 하여 예술적 관점에서 플라톤의 언급을 해석해 보고 이에 따라 무용과 체육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전쟁무용과 군사훈련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플라톤은 고귀한 종류의 무용에는 코레이아 및 ‘피리케(pyrrhikē)’ 즉 전쟁과 관련된 무용(pyrrhikē orkhēsis)이 있으며 전쟁무용은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전쟁무용을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투를 잘 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 교육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에만 집중하여 그것을 단순한 훈련이나 체육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무용이 김나스티케처럼 군사훈련으로 이용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어 당시의 무용을 예술이 아닌 체육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플라톤이 전쟁과 관련된 무용을 지칭하는 용어인 ‘피리케(pyrrhikē)’는 전장에서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투 하는 모습을 모방한 것으로 피리케의 발상지인 스파르타에서는 이것이 모든 청소년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리케는 오직 스파르타인들 사이에서만 ‘전투의 예비훈련(progymnasma)’으로서 존속하고 있었고 플라톤이 살던 시대 당시 아테네에 전파된 피리케는 군사훈련이기 보다는 오히려 디오니소스 축제 춤의 일종이 되었다고 한다.⁷²⁾ 또는 아테네의 국가적 제의인 판아테나이아(Panathenaea) 축제에서 아테나(Athena) 여신에게 감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빌기 위한 주요 행위로 이용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⁷³⁾ 따라서 플라톤이 언급한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김나스티케와 같이 군사훈련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무용을 포함한 예술 활동이었던 코레이아 혹은 판아테나이아 축제를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옥스퍼드 댄스 사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피리케를 ‘워댄스(War Dance:전쟁춤)’ 또는 ‘암댄스(Armed Dance:무

72) 박종현 역. (2009). 앞의 책. p.539. 각주 174 참고.

73) S. J. Cohen. (199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DANCE* 5. New York : Oxford. p.283.

기춤)’라는 춤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⁷⁴⁾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무용이 예술이 아닌 체육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전쟁과 관련된 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해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싸움과 춤을 동일한 수준 위에 놓는 것은 고대 그리스 이전부터인 원시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쿠르트 작스(Curt Sachs)에 의하면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후에 보여지기 위한 춤이 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술적인 동작과 리듬, 음악의 반주가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춤에서는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의미가 모두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훈련이라기보다는 예술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⁷⁵⁾ 쿠르트 작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술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모방과 주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모방과 주술과의 관계는 예술의 기원을 볼 때 비단 무용만이 아닌 거의 전 예술분야에 적용된다. 예컨대 원시인들은 맹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노래로써 동물들의 특성을 재현하고 춤으로써 동물들의 동작을 모방하며 자신의 안전을 기원했다. 이러한 모방은 늘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주술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모방춤은 소망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전투모습을 모방한 전쟁과 관련된 무용을 단순한 훈련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예술과 주술과의 관계는 오늘날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시키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생사의 문제에 직면한 이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인간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한다는 데에서 음악이고 노래이지 이것이 훈련은 아니다. 고대인들의 무용역시 이와 동일하다.⁷⁶⁾

74) 옥스퍼드 댄스 사전에서는 피리케를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피리케가 음악 반주에 맞추어 행해진, 즉 리듬을 갖춘 춤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S. J. Cohen. (1998). 위의 책. pp.282-283.

75) 김매자 역. (1983). 위의 책. p.297.

76) 그로트세(Ernst Grosse)는 「예술의 기원(Die Anfänge der Kunst)」에서 아테네,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전투를 위한 춤이 추어졌는데 그 이유를 춤이 지닌 심리적 효과에 주목하며 “춤은 사회적 통합과 연대책임의식의 형성에 공헌해왔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투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고 말한다. 얼핏 준비운동체조나 체육에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는 그들의 몸 동작을 훈련이 아닌 춤으로 보는 까닭은 그것이 단순한 신체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심리적 감정의 발현을 목적으로 행함으로써 춤의 예술적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국무용교육학회. / 김운미. (2003). 무용교육의 발달.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학문화. p.33.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에서의 전쟁무용이란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미리 행해지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추어졌고 이는 전쟁에서 느껴진 정서를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⁷⁷⁾ 과거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춤의 주제에 삽입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방이나 신체훈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된다. 또한 춤을 출 때 사용했던 각종 무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대체되는 등 소도구의 양식화가 일어나 초기 비상징적이었던 모방 춤이 점차로 내적인 힘을 가진 상징적인 춤의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전쟁무용은 훈련이기 보다는 예술성을 지닌 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무용의 목적과 기능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예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심할 바 없이 예술이었던 당시의 무용을 플라톤은 어떠한 이유로 무시케에서만이 아닌 김나스티케에서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용이 가진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목적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무용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와 주제의 무용이 있었다. 그들의 무용은 크게 제의나 의식과 관련된 원시적 무용과 보다 예술적인 모습을 갖춘 예술적 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시적인 형태의 무용에는 전쟁무용, 종교무용, 그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의 무용 등이 있었으며 이 춤들은 원시인들이 일상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생명, 힘, 풍요, 건강 등을 위해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⁷⁸⁾ 이러한 원시적인 무용은 후에 예술적 무용으로 이행된다.⁷⁹⁾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무용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내포되어 있었다. 전쟁무용, 종교무용과 같은 원시적인 형태의 무용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주술적 기능, 종교적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종교적 기능, 전투를 위한 신체

77) 오병남 역. (1996). 앞의 책. p.50.

78) 김매자 역. (1983). 앞의 책. p.74, p.295.

79) 김매자 역. (1983). 앞의 책. p.300.

발달 및 단련의 기능 등이 있었다. 원시적인 무용 이후 나타난 예술적 무용은, 관객은 감상을 통해 배우는 움직임의 통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심미적 기능이 있었다.

무용은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플라톤이 레슬링과 함께 김나스티케의 하나에 포함시켰던 무용이란 무용이 가진 여러 기능 중 “신체 단련의 기능”에 중점을 둔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의 목적과 기능 중에서 전쟁무용과 같이 군사 훈련과 관련된 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발달을 꾀하는 신체 단련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불어 전쟁 상황에서의 용기를 기르게 한다는 “주술적 기능” 면에서 플라톤이 지적했던 김나스티케의 기능과 공통된다. 즉 이 둘은 모두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 및 기개의 발달”에서 무용과 김나스티케는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제 3 절 무용을 구성하는 요소- 리듬

앞 장에서 언급했듯 플라톤은 『법률』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무용과 음악의 복합된 활동인 코레이아는 ‘리듬(rhythmos)’과 ‘조화(harmonia)’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리듬은 무용을 구성하는 요소 4가지 즉 시간(Time), 공간(Space), 힘(Weight), 흐름(Flow) 속에 포함되어 존재한다. ‘리듬(Rhythm)’이란 무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서 시간, 힘, 흐름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⁸⁰⁾

리듬은 무용과 음악에서 매우 잘 드러나지만 사실 달리기, 노 젓기, 핸들 돌리기, 페달 밟기, 도보, 행진 따위의 인간의 노동 및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제스처, 심지어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행위와 같은 인간 활동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⁸¹⁾ 더불어 리듬은 회화와 같은 종류인 공예, 직조 및 자수, 일반 가구 제작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까지, 생물의 신체 및 모든 식물의 조직에까지 들어가 있다.⁸²⁾

80) Rudolf, Laban. (1948). / 김주자 역. (1999). 『현대의 무용교육』. 서울 : 현대미술사. p.21, p.50.

81) 김매자 역. (1983). 앞의 책. pp.17-18.

82) Herbert, Read. (1943). / 황향숙 외 역. (2007). Education Through Art. 『예술을 통한 교육』. 서

이러한 의미에서 에르트만(A. Erdmann)은 자연·인간·예술 등 세계 전체는 리듬적 운동에 현실존재를 맡긴다고 하며, 리듬은 인간의 모든 움직임 현상들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건강이나 생산의 기쁨, 창조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술과 생활에 걸쳐 교육원리로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⁸³⁾ 또한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에 의하면 힘을 쏟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리듬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작업행동(working action)이 효과적인 반복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또 작업에 대한 내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변화의 의식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⁸⁴⁾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는 결국 리듬에는 사람을 몰입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잘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신체 움직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진 리듬은 무용과 음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무용은 신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 어디에서든 활용될 수 있다. 원시시대 전쟁을 준비할 때, 고대 그리스에서 무용을 심각한 전투연습으로 간주한 것, 그리고 오늘날 군대에서 음악이나 무용이 활용되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제 4 절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무용의 효용성

위에서 예로 제시한 군대에서 이용되는 음악과 무용은 전문적인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훈련 과정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마치 예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에는 실용적 목적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순수한 예술적 동기에 의해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예술(fine art)’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학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효용성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실용예술(useful art)’이 있다.⁸⁵⁾

사실 예술이 생활과 분리되어 예술영역만의 특수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

출 : 학지사. pp.97-98.

83) 안영길 외 역. (1984). 앞의 책. pp.659-661.

84) 김주자 역. (1999). 위의 책. p.159, p.50.

85) "예술철학"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members.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66719>[2009. 12. 10자 기사]

은 겨우 근세에 들어 발생된 것으로 명확하게는 칸트(Immanuel Kant)의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의 규정, 즉 자신의 이익에 의하여 동기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미적 조건을 내세운 이후부터 시작되어 19세기 고티에(Théophile Gautier)가 인생을 위한 예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예술 자체 및 미(美)에 있다고 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사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미나 예술의 극단적인 순수성의 주장하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예술은 다시 삶의 기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은 예술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멀리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은 사회기능 및 생활효용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적인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⁸⁶⁾

예술이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예는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되는데 예컨대 미술에서의 산업디자인이나 공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음악에서는 교회음악(Church music), 사교음악(Tafelmusik)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순수예술은 아니지만 분명 예술의 한 형태이다. 때문에 군가와 군악이 예술성 보다는 군사훈련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를 예술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군사훈련에서 사용되는 무용 역시 예술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춤의 효용성에 집중한 무용이다.

제 5 절 예술적 관점에서 본 무용과 체육

본 장에서 살펴보았듯 플라톤은 『법률』에서 교육을 크게 무시케와 김나스티케 둘로 나누고 체육이자 군사훈련이었던 김나스티케에 레슬링과 함께 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무용의 종류를 나누며 전쟁과 관련된 무용은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 고대 그리스는 오늘날과 같이 예술이 기술과 또 학문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문화의 비 분화 상태였기 때문에 플라톤은 무용을 신체문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체육과 함께 언급하였을 수 있다.

86) 안영길 외 역, (1984). 앞의 책. p.625.

그러나 플라톤 이후 예술과 기술, 그리고 학문은 완전하게 분리되며 각각 독립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예술은 학문이나 기술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하지만 고대에는 서로 혼재되어 있던 것들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가 근세에 이르러 1750년 프랑스의 미학자 바뎡(Charles Batteux)가 자신의 저서 『동일원리로 환원되는 순수예술들』에서 음악, 시, 회화, 조각, 무용을 ‘순수예술(fine art)’이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예술은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분리되었다.⁸⁷⁾ 이에 따라 근세 이후 오늘날까지 무용은 시, 음악 그리고 체육과는 별도로 독자적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가 문화의 비 분화 상태였기 때문에 무용을 신체문화라는 틀에서 체육과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무용은 예술의 영역에서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플라톤의 사상에서 무용은 근본적으로 무시케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플라톤은 단지 무용과 체육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라톤의 저서에서 무용이 무시케와 김나스티케 둘 다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앞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 플라톤의 언급은 무용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에 주목한 것으로 무용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용은 신체를 매체로 하기 때문에 신체의 단련이나 기개를 기르는 부분에서 김나스티케와 동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용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리듬이 있고 리듬은 사람을 몰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리듬은 무용과 음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지만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리듬을 잘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신체 움직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군사 훈련에서 음악이나 무용이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자신의 교육론에서 무용을 체육의 분야에서 다루었던 것은 무용과 체육은 신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 무용의 효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체육에서 무용이 군사훈련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공통점을 지니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예는 무용과 체육 사이에서 뿐만이 아닌 모든 예술과 학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오늘날 별개의 예술

87) 손효주 역, (2008), 앞의 책, 36.

장르 또는 각각의 학문으로 나뉘는 것들은 일정부분의 요소를 공유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음악은 리듬이라는 요소를 무용 및 문학과 공유하고 있으며 수학적 규칙을 따르기도 한다. 미술의 발전은 인체 비례나 원근법이라는 수학적·과학적 공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체육 역시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임상치료라는 분야를 의학과 공유하고 있다. 또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의 영향으로 보다 세련되어지고 있다. 희곡의 내용을 배우의 연기로 전달하는 연극은 당연히 문학과 떼어 수 없는 사이이며 그것을 기초로 무대장치, 의상, 배경음악, 노래 춤 등의 미술과 음악 그리고 무용을 결합하여 완성시킨다. 오늘날에는 이들을 상업적으로 대중화시키기 위해 마케팅전략이라는 경영의 원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단 몇 개의 예시만으로도 인간 활동이 빚어낸 산물이란 상호간 작용의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립적인 각 장르들은 수없이 많은 학문 및 예술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무용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용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함께 나타나므로 연극과 함께 흔히 종합예술이라 불린다. 무용은 신체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체육과 같은 요소를 지녔지만 이뿐만 아니라 리듬이라는 무용의 본질적인 요소를 음악과 공유하고 있고 또 현재에는 미술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작품을 완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용과 체육이 신체움직임이라는 동일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무용은 신체문화라는 틀 안에서는 체육과 함께 존재하지만,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용과 체육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며 덧붙여 무용의 기원 또한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해리슨(Jane Ellen Harrison), 아담 스미스(Adam Smith), 피비우스(Paul Julius Mobius)와 같이 예술의 발생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무용은 인류 문화와 함께 시작된 가장 원시적인 예술의 형태 중 하나로 곧 예술의 출발에 있다고 언급한다. 만일 예술의 초기 형태를 지닌 무용이 신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체육과 동일한 영역에 놓여야 한다면 체육과 예술의 기원은 같다는 말이 되어버리며 이는 곧 무용과 함께 시작과 발전을 함께 해온 타 예술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무용은 신체문

화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체육에서 무용의 내용을 일부 다룰 수 있지만 무용은 그 기원상 본래부터 예술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체육의 영역이 아닌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 제 2 장, 3 장, 4 장에서 살펴본 플라톤의 예술론과 교육론 속에 나타난 무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하면 무용과 체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제 2장에서는 플라톤의 예술론 중 모방적 예술과 영감적 예술에 대해 살펴보면서 무용의 특징은 무엇이며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탐구해 보았다. 플라톤의 예술론에 따르면 무용은 시, 음악과 함께 기술에 의한 모방적 예술과 신적 영감에 의한 영감적 예술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영감적 예술은 인간의 숙달된 기술이 아닌 신적 영감을 부여받아 이루어지는 창조적 행위로 사물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진리획득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유형의 지식이자 더 높은 단계의 정신적 활동이라 하며 모방적 예술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러한 영감적 예술을 무시케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영감적 예술 즉 신적 영감에 의한 무시케는 상상력, 창의력을 요하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곧 오늘날 예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오늘날 순수예술인 시, 음악과 함께 무시케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무용은 고대부터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를 파악하게 하는 숭고한 활동이었다.

플라톤의 예술론을 통해 무용의 본질을 확인해보았다면 이어 제 3장인 플라톤의 교육론에서는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을 통해 무용교육과 체육교육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해보면서 보다 명확하게 체육과 구별되는 무용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플라톤의 교육론을 보면 플라톤은 자신의 교육 제 1단계에 무시케와 김나스티케를 놓고 있다. 무시케 교육은 인격을 함양하는 영혼의 교육으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높은 부분인 철학적 부분을 기르는 것이었다. 반면 김나스티케는 신체를 단련하고 군사 훈련을 하는 신체의 교육이었으며 인간의 본성 중 기개를 기르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이 두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 두 교육 중 무시케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시케 교육이 영혼을 위한 교육이므로 정의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이념 즉 도덕적으로 선한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때 무용은 넓은 의미에서 무시케 교육에 포함되며 또 플라톤은 무용의 한 종류인 코레이아가 무시케 교육과 같이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무용은 곧 영혼을 위한 무시케 교육 즉 예술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필수적인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플라톤이 기록한 내용을 종합하면 무용은 무시케에서 체육은 집네 스티케라는 각각 다른 영역에 위치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용은 고대부터 예술이었으며 예술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미 말했듯 플라톤이 무용을 체육의 분야에서 다루었던 것은 무용과 체육은 신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 무용의 효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체육에서 무용이 군사훈련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과 체육은 신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용은 예술의 영역에서 체육은 운동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개별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무용은 독립된 예술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에서의 무용은 예술이 아닌 체육의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용계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고 체육과 구분되는 무용의 교육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 무용과 체육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용이 체육 내에서 교육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구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또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저서에서는 무용을 예술로 보면서도 동시에 체육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며 이를 근거로 무용과 체육을 동일한 영역 속에 넣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언급은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여지를 갖고 있어 그 관점에 따라 무용과 체육은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 무용은 예술의 영역에서 체육은 운동의 영역에서 각각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플라톤의 예술론과 교육론에 나타난 무용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무용과 체육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플라톤의 예술론 중 모방적 예술과 영감적 예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무시케 교육과 김나스티케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플라톤이 무시케와 함께 김나스티케에 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을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이유를 해석해 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부터 무용은 영감, 상상력, 창조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시케 즉 예술이었다. 무시케는 인격을 함양하는 영혼의 교육으로 김나스티케와는 다른 정신 능력 즉 철학적 부분을 기르는 활동이었다. 무시케가 고귀한 활동이었던 것은 그것이 영감에 의해 이루어져 사물의 본질과 우주의 진리를 파악

하게 해주었기 때문으로 이는 오늘날 개별적인 기술이나 단편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예술교육의 목적 또는 가치와도 같다.

무용도 역시 개별적 기술이나 일차원적인 신체 움직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신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무시케 교육과 동일하다. 즉 무용은 고대부터 무시케 즉 예술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체육과는 다른 영역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시케가 기술적 모방이 아닌 영감을 부여 받았을 때 고귀한 활동이며 필수적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예술교육에서의 무용은 기교나 기술적 능력에 치중하기 보다는 영감, 상상력, 창의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신적 활동이 될 때 체육과 차별화 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플라톤이 무시케인 무용을 김나스티케에서도 다루게 된 요인은 무용과 체육이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신체발달을 이루고 기개를 기를 수 있다는 공통점을 파악하여 무용의 여러 기능이 체육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군사훈련의 일부로 여겨진 무용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용과 체육은 근원적으로 다르지만 무용의 효용성은 체육에 도입되어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무용을 무시케라고 하면서도 김나스티케에서 다시 언급하였다고 해서 무용이 예술인 무시케와 체육인 김나스티케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대에서의 군가와 군악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음악 자체를 체육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군사훈련에서의 무용 역시 “신체”와 “기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여 무용이 체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언급을 예술적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 무용과 체육은 일정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용은 예술의 영역에서 체육은 운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무용과 체육은 모두 신체 움직임을 도구로 사용하므로 “신체 발달”

및 “기계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공통된 기능을 갖는다.

둘째, 무용을 이루는 리듬이라는 요소는 무용의 효용성을 높이므로 체육에서 무용의 효용성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무용은 영감, 상상력, 창의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시케 즉 예술이며 인간의 본성 중 철학적 부분을 길러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게 한다는 체육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따라서 무용은 체육이 아닌 예술교육에서 다루어질 때 교육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나아가 예술교육에서의 무용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 보다 상상력, 창의력, 영감을 중시하여 자신과 세계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예술교육의 특성을 살릴 때 그 교육적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Cohen, S, J. (199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DANCE 5*.
New York : Oxford.
- Dubler, M .H. (1940). 성미숙 역. (2004). *Dance : A Creative Art Experience*. 『창조적 경험으로서의 춤』. 서울: 현대미학사.
- Harrison, Jane Ellen. (1948) / 오병남 역. (1996). *Ancient Art and Ritual*.
『고대 예술과 제의』. 서울 : 예전사.
- Laban, Rudolf. (1948). / 김주자 역. (1999). 『현대의 무용교육』. 서울 : 현대
미학사.
- National Dance Association. (1994). / 현희정, 김학금 역. (1996). *National Standards For Dance Education*. 『미국무용교육지침』. 서울 :
보진재.
- Nettleship, R. L. (1935). / 김안중 역. (1989).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플라톤의 교육론』. 서울 : 서광사.
- Plato. / Benjamin Jowett. (tr.). (2003). *Laws*. Gutenberg eBook.
- . / Benjamin Jowett. (tr.). (1999). *Ion*. Gutenberg eBook.
- . / 박종현 역. (2005). *Republic*. 『국가』. 서울 : 서광사.
- . / 박종현 역. (2009). *laws*. 『플라톤의 법률』. 서울 : 서광사.
- . / 조대호 역. (2008). *Phaidros*. 『파이드로스』. 서울 : 문예.
- Prudhommeau, G. (1942). / 양선희 역. (1995). *Histoire de la danse*. 『무용의
역사 I』. 서울 : 삼신각.
- Read, Herbert. (1943). / 황향숙 외 역. (2007). *Education Through Art*. 『예
술을 통한 교육』. 서울 : 학지사.
- Sachs, Curt. (1933). / 김매자 역. (1983). *Eine Weltgeschichte des Tanzes*.
『세계무용사』. 서울 : 풀빛.

- Tatarkiewicz, W. (1980) / 손효주 역. (2008). *A History of Six-Ideas : An Essay in Aesthetics*. Warszawa; Polish Scientific Publishers.
- 『미학의 기본개념사』. 서울: 미술문화.
- Whitehead, A. N. (1957).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 Harper & Row.
- 김경배, 김재건, 이홍숙. (2005). 『교과교육론』. 서울 : 학지사.
- 김상순. (1998). 『서양 체육사』. 서울 : 바탕.
- 다케우치, 도시오. (1974). / 안영길 외 역. (1984). 美學事典. 東京 : 弘文堂.
- 『미학예술학사전』. 서울 : 미진사.
- 박의수, 강승규, 정영수, 강선보. (200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 동문사.
- 우종옥. (2001).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서울 : 교육과학사.
- 유정애. (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 대한미디어.
- 이필근. (2009). 『체육원리』. 경기: 오산대학 산업기술연구소.
- 日本舞踊教育研究會. (1991). / 현희정 역. (1997). 舞踊學講義. 『무용학강의』. 서울 : 보진재.
- 임태평. (2008). 『플라톤 철학과 교육』. 경기 : 교육과학사.
- 전태련. (2006). 『함께하는 교육학』. 서울 : 마이썸.
- 하남길 외. (2007).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경남 : 경상대학교출판부.
- 한국무용교육학회. (2003).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학문화사.
- 한윤희. (1995). 『고대 그리스의 무용문화』. 서울 : 대한미디어.

2.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 김지의. (1987). 「『국가』 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예술관」.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손청문. (1989). 「플라톤의 paieia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안용규. (1998). 「플라톤의 체육사상에 관한 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1, pp.181-201.

- 안용규. (2000). 「체육·스포츠, 무용 -미학에로의 초대」. 한국 스포츠 무용
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세미나.
- 여인성. (2003). 「플라톤의 범률편에 나타난 체육내용 및 방법론에 관한 연
구」. 『한국체육철학회지』.
- 이승건, 안용규. (2005). 「‘미메시스(mimesis) 미학’에서 본 무용예술」. 『한
국체육철학회지』, 13(2), pp.255-273.
- 이승건. (2007). 「미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서양의 신체문화.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이신연. (1987), 「플라톤의 mousikē 사상」.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진이. (1999). 「플라톤의 우주적 무용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3. 인터넷 검색

"예술철학"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ABSTRACT

Relationship of Dance to Physical Education in Platon's Art Education Theory

Lee, Gyeo-Ra

Major in Dance Education

Dept. of Da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lthough dance is a separate art genre, that is currently taught as part of physical education, not as an art genre, which has been a drag on the development of dance education as education of art. To remedy the situation, what problems the field of dance are confronted with and what trigger such problems should accurately be checked, and the uniqu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hysical education should be analyzed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about the fact that dance is merely instructed as part of physical education, and it seems that one of the reasons is rooted in how to interpret Platon's philosophy, an ancient Greek philosopher. In his book, dance was viewed as art yet incorporated into physical education at the same time, and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have sometimes been thought to belong to the same field on the ground of that. However, Platon's mention admit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that could lend credibility to the argument that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should separately be instructed as what respectively

belong to the fields of art and exerc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education in Platon's theories of art and education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In relation to his art theory, mimetic art and inspirational art were first discussed, and then mousike education and gymnastike education were explained, which belonged to his educational theory. And the reason why he incorporated dance into mousike and gymnastike was explored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have something in common, as both use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thereby make it possible to make a physical development and improve thymoeides. And rhythm that is one of the components of dance serves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can take advantage of that efficiency of dance. However, dance is mousike, namely art, which is created by inspirati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mousike education is mental education to step up character build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hysical education that aims to improve logistikon, part of human nature, to grasp the truth of the world. Therefore, it's possible to attain the objects of education when dance is taught as art, not as part of physical education. Moreover, the educational value of dance as art education could be highlighted when learners rely on their own imagination, creativity and inspiration to perceive and express themselves and the world in their own way, which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rt education, instead of merely copying the movements of others. When Platon's mention is interpreted from an artistic standpoint, it is evident that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should be instructed in the fields of art and exercise respectively, though there are something common between the two.